

“한국 최초 우주영화 자부심 느낀다”



오는 5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영화 '승리호'에 출연하는 진선규(왼쪽부터), 송중기, 김태리, 유해진.



영화 '승리호' 스틸컷.

내일 넷플릭스 공개 '승리호' 송중기·김태리·진선규·유해진 출연 새로운 시도...향후 SF 영화 기대

영화 '승리호'에 출연한 송중기, 김태리, 진선규, 유해진은 한국 최초 우주 영화 제작에 함께했다는 자부심을 한껏 드러냈다.

2일 열린 '승리호' 온라인 콘퍼런스에서다. 이들은 넷플릭스를 통한 영화 공개를 사흘 앞두고 흥분과 기대감이 들떠 보였다.

오는 5일 일정에 공개되는 '승리호'는 2092년을 배경으로 우주쓰레기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이 대량 파괴 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시를 발견한 후 위험한 거대한 거구에 뛰어든 이야기다.

영화에서 '태호'역을 맡은 송중기는 "한국 최초의 우주 영화라는 국가대표 작품이란 점에서 감독님의 부담이 컸을 것 같다"며 "(배우로서는) 부담보다 설레고 기대되는 점이 컸다"고 말했다.

승리호를 이끄는 '장 선장'을 연기한 김태리 역시 "우주 영화가 한국에서 나오면 어떨지 잘 보여준 것 같다. 영화가 한국적이다"라며 "우리 영화가 (한국의 우주 영화 제작) 시작 지점에서 다 같이 힘

을 합쳐 촬영했다는 점이 뿌듯하다. 승리호 이후에 나올 SF(공상과학) 영화들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관사 '타이거 박'과 로봇 '업둥이'를 각각 연기한 진선규와 유해진은 "운동선수로 치면 전국체전,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느낌", "우리나라 최초의 SF 영화인데 너무 근사하게 나왔다. 자랑스럽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승리호'는 구상부터 제작까지 꼬박 10년이 걸렸다. 우주 공간을 스크린에 구현해내는 기술적인 문제부터 로봇이 움직이는 모션 캡처까지 세세하게 신경 쓸 부분이 많았다.

조성희 감독은 "10년 전 우연히 우주 쓰레기에 대해 듣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며 "우주 폐기물을 치우는 사람이 존재하고,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기쁨을 묻히며 살아가는 상황을 그렸다"고 작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주 공간에서 물체에 닿는 빛의 느낌을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울지 고민했다"며 "속도감에서도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우주선이 작고 가벼워 보일 수 있고, 느리게 움직이면 박력이 없을 수 있어 균형을 맞추는 데 공을 많이 들였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도의 작품인 만큼 배우들도 촬영장에서 생소한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진선규는 "기관실 촬영은 실제 항공에 정박한 선박

에서 촬영했는데 엔진소리가 너무 커서 감독님의 액션과 컷 소리가 안 들렸다"며 "'이때쯤 컷이겠지' 하고 멈추고, '이때쯤 액션이겠지' 하고 연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초록색 배경에서 CG를 입힐 장면을 촬영하던 때를 회상하며 "감독님이 '2시 방향', '뒤에서 친다' 외치는 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촬영이 끝날 때는 적응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유해진은 연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션 캡처 기술로 로봇 '업둥이'를 연기했다. 유해진은 "작업이 복잡했지만, 저한테는 신선한 경험이었다"며 웃었다. 조 감독도 "현장에서 배우, 스태프 모두가 상상력이 필요한 현장이었다"며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다들 어떻게 영화가 나올지 기대하며 촬영에 임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배우들과 조 감독은 영화가 극장이 아닌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보다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 감독은 "아쉬움은 없고, 설레고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영화를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게 된 만큼 한국에서 다양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해외 관객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김태리는 "집에서 보실 때는 꼭 소리를 크게 해 놓으면 실감 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관람 팁을 전했다. /연합뉴스

'와일드 와일드 퀴즈' 박세리 "음식에 흑해서 출연"



퀴즈쇼와 리얼리티 예능, 쿡방, 먹방이 만나 맞으면 먹고 못 맞으면 굶는 야생 생존 예능이 탄생했다.

MBN과 skyTV 버라이어티 채널 엔큐큐(NQ)가 준비한 새 예능 프로그램 '와일드 와일드 퀴즈'가 지난 2일 오후 11시 처음 방송됐다.

야생에서 동고동락할 멤버로는 '예능 베테랑' 이수근, '골프 여제' 박세리(사진), 코미디언 양세찬, 이진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이혜성, 유투버 밥굽남까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6명이 모였다. 이들은 2일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야생' 콘셉트에 어울리는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박세리(44)는 "선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계절별 제철 식자재를 잘 먹어보지 못했다"며 "어떤 재료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음식에 흑해서 촬영하게 됐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그는 "못하는 것도, 지는 것도, 못 먹는 것도 싫은데 이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성격이 보여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말하며 웃어 보였다.

이수근(46)은 "워낙 야외를 좋아해서 출연하게 됐는데 야생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 굶고 안 굶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눈치

가 빨라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지가 다 보인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너무 잘 먹어서 키가 2cm가 컸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정글은 식자재를 구해서 먹어야 하고, 자연을 즐기는 프로그램은 만들어 준 음식을 먹는데 저와는 다르다"며 "와일드 와일드 퀴즈"는 좋은 동료들이랑 캠핑을 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혜성은 "항상 스튜디오 안에서만 촬영해서 야외 프로그램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며 "촬영하면서 환상이 많이 깨지긴 했지만, 독기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청자분들께서 이혜성의 성장기를 함께 봐주셨으면 한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떠오르는 예능계의 샛별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은 김종무 PD는 "퀴즈마다 식자재가 걸려 있어 받은 재료를 어떻게 조합해 기발한 요리를 만들어내는지가 기존 프로그램과 다르다"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김 PD는 "자연, 식자재, 음악 등 다양한 주제의 퀴즈를 통해 시청자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또 출연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요리들을 만들어 내는 걸 보는 재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조선 선비 '강항' 다큐 드라마 방송

광주MBC '간양록' 10일 밤 방송

조선시대 때 일본에 성리학을 전파한 수는 강항(1567-1618)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광주MBC UHD 다큐 드라마 '간양록'이 오는 10일 밤 9시 20분에 방송된다.

강항은 영광 출신으로 정유재란 당시 군량 수송과 의병 모집 책임을 맡은 인물이다. 왜의 수군이 한산도를 깨뜨리고 서해로 돌아 들어오자 그는 가족과 배를 타고 탈출하려 했으나 두 형과 왜군의 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려가 2년 8개월을 보낸다.

강항 선생은 적진에서도 기개를 굽히지 않고 우국충절의 마음으로 왜국의 동정을 기록한 '적중봉소'를 세 차례 보내 조선이 당시 왜국의 정세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강항 선생 일본에서 생활할 당시 유학자인 후지하라 세이카(1561-1619)를 만나 조선의 성리학을 전수했다. 이 시기 일본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정치적 전환기였으며, 수은이 전파한 주자학은 일본 근대화화의 기틀을 닦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UHD 고화질로 제작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강항의 포로 생활의 궤적을 따라가 본다.

철저한 고증과 일본 현지 취재, 다큐멘터리와 드라마적 접근을 통해 조선 선비 강항 선생을 생생하게 재조명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ju.co.kr



강항 선생이 귀국 후 쓴 저술서 '간양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조선 선비의 기개와 고민, 성리학 전파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바람직한 미래의 한일관계를 모색해본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밝혀진 '간양록'의 학술적 가치를 방송 최초로 공개한다.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한기름 PD는 "수는 강항 선생의 일대기를 취재하다 보니 '간양록'이 현재의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데 해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의 우리가 다시 '간양록'을 읽는다면 경색돼있는 한일관계를 푸는 해법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석이의 유머인생
밤벌레의 행복
이기원 지음

정가 12,000원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꾸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행복요양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남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

전주(영풍문고, 응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